

SVB 파산에 와이너리 ‘덜덜’… 美 와인업계 초비상



안 상 미 기자

Why, wine

“프리미엄 와인 부문은 작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미국의 와인 소비는 전체적으로 2년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앞으로 와인 판매는 업계가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지에 달려 있다.”(SVB 미국 와인산업 현황 보고서 2023)

미국 와인산업의 위기를 논했지만 정작 자신의 위기는 보지 못했다.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애기다.

SVB의 초고속 파산선언에 화들짝 놀란 곳은 IT 스타트업 뿐만이 아니었다. SVB는 무려 30년 가까이 나파밸리, 아니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의 절대적인 자금줄이기도 했다.

대응도 빠르지 못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퍼진 SVB 위기설에 스타트업들은 재빨리 예금 인출에 나섰지만 와인 메이커들은 SVB 신용카드와 수표로는 결제가 자꾸 거절되고, 은행 앱에 로그인조차 되지 않게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그제서야



미국 내 자산 16위 은행인 SVB는 대규모 예금 인출에 이달 10일 파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에 있는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사 앞에 고객들이 줄을 서 있다 /신화·뉴스시

부라부라 유통업체들에게 와인 대금을 입금하지 말라고 전화를 돌리고 수습을 하기 시작했다. SVB가 와인 사업부를 만든 것은 지난 1994년이다. 와인 산업의 잠재력을 알아본 창업자 롭 맥밀런 덕분이다. 와이너리들이 기존 은행에서는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공략해 대출은 물론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한 컨설턴트의 역할까지 자처했다.

사실 와인 사업이라는 게 시간과 돈, 그리고 기다림이 필수다. 포도나무가 쓸 만해질 때까지 몇 년, 와인을 만들어 놓고도 숙성하는데 또 몇 년이다. 시간만으로도 돈을 까먹고 있는데 오크통 같은 것은 또 얼마나 비싼

지. 이렇게 돈과 시간을 들이고도 와인의 맛이 인정을 받을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실패한다면 이 지난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보수적이고 간간하기로 소문난 미국 은행들이 이런 사업에 쉽게 돈을 빌려줄 리가 없었다.

SVB는 달랐다. 대출을 요청한 곳이 있으면 와이너리에 함께 앉아 와인을 시음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시장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장단기적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일지 같이 고민했다.

결이 다른 접근에 와이너리들은 SVB로 몰려들었다. SVB와 거래하는 와이너리만 400

여 곳에 달했으며, 이들이 그간 빌린 돈은 40억 달러(한화 약 5조원)다. 작년 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출은 12억 달러다. 미국 와인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파리의 심판’에서 1위를 차지한 샤도 몬텔레나도 SVB의 도움을 받았으며, 많은 캘리포니아 유수의 와이너리들이 SVB의 고객이다.

맥밀런은 “우리가 와이너리에 대출을 해주고 손실을 입은 금액은 지난 30년을 모두 통틀어도 400만 달러(한화 약 5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가 특별히 보수적으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와인 사업의 리스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고객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인내심도 충분했다”고 말했다.

SVB의 와인사업부가 매년 내놓는 ‘미국 와인산업 현황 보고서’는 업계에서도 정확한 분석과 통찰로 정평이 나있었다. 포도 작황은 물론 와인생산량, 생산 원가 분석, 와인소비 트렌드 등까지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미국 와인산업을 논할 수 있었지만 2024년 버전은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고전이 전하는 경고

2013년경 등장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인터넷 유행어가 있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다른 밈(유행 콘텐츠)과 달리 이 말이 현재까지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내 맘대로 고전 읽기’에서 저자가 들려주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내인 가이아의 도움으로 신과 인간 세계의 지배자가 된 우라노스는 이 권력을 천세만세 누리길 원한다. 그런 그의 눈에 가이아가 낳은 아이들은 자신을 넘어뜨릴 적으로 보였을 터. 우라노스는 자식들의 외모가 괴물 같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이들을 타르타로스(지옥)에 가둔다.

가이아는 아들과 함께 우라노스를 없앨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긴다. 아버지를 제거한 크로노스는 새 시대의 지배자가 된다. 크로노스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이 왕좌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 애가 태어나는 족족 먹어치운다. 그의 아내 레아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크레타섬 동굴로 들어가 몰래 아이를 낳은 후 돌을 강보에 싸서 아기처럼 꾸민다. 크로노스는 돌을 아들로 여겨 집어삼킨다. 이때 살아남은 게 제우스다. 훗날 제우스는 아버지를 무찌르고 신들의 왕이 된다.

책은 세대를 넘어 어리석음이 이어진다는



내 맘대로 고전 읽기

최봉수 지음/가디언

사실을 짚는다. 고전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반복하는 건 인간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 되풀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경전에서 인간의 욕심, 욕망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은 불안해서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라면서 “분명한 건 인간의 가장 저급한 것의 하나인 배신은 적어도 욕망보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출발한다.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에서 배신이 움튼다”고 말한다. 책은 불안해하는 자의 뒤끝을, 불안해하는 표정 뒤에 감춘 비열한 칼날을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304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세습 자본주의 세대

고재석 지음/우석훈 해제/인물과사상사

1980년대생은 산업화 이후 풍요 속에서 자라며 큰 꿈을 펼치란 말을 듣고 자랐다. 그러나 막상 이들이 성인이 되고 마주한 것은 잔인한 현실이었다.

20대 때는 고시원 인생, 30대 때는 월급 인생, 급기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영끌족이 됐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아파트를 사고 빚내서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으로 모은 종잣돈만으로 집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세습이 아니고서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시대의 막이 올랐다. 책은 한국 자본주의의 우울한 민낯을 까발린다. 348쪽. 1만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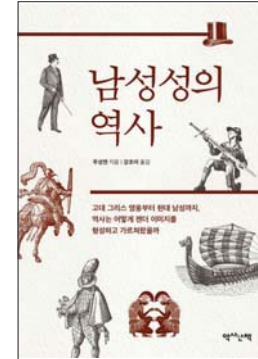


남성성의 역사

루성연 지음/강초아 옮김/도서출판 역사산책

‘남자다운 남자’라는 프레임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져 왔다.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는 용맹한 영웅, 르네상스 시대엔 ‘팔방미인’, 계몽주의 시대엔 ‘젠틀맨(신사)’, 산업혁명 시대엔 ‘노동자’ 등 각 시대는 ‘이상적인 남성성’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남성들에게 주

입해왔다. 저자는 남성이 어떻게 가부장제 아래서 피해자이자 가해자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고, 오늘날 사회에서 남성이 누리는 권력과 그들에게 가해진 억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누적되고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한다. 288쪽.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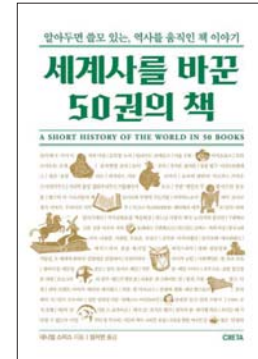
세계사를 바꾼 50권의 책

다니엘 스미스 지음/임지연 옮김/크레타

‘책 따위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마오쩌둥, 맥아더, 콜린 파월은 모두 ‘손자병법’의 애독자였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권력을 빼앗긴 된 매디치가를 쇄신하기 위해 쓰였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2000개가 넘는 셰익스피어의 글이

인용문으로 실려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1700개 이상의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냈다.

저자는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 가운데 50권을 추려 이 위대한 고전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한다. 304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가수 정동원, 오토바이 불법주행 불구속 입건
- ▲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핵심인물 도피 도운 일당에…‘집유’



- ▲ 경찰, ‘주말 서울 도심집회’…“불법엄정대응·소음 엄격관리” /뉴스시
- ▲ 제주 성폭행 미제사건…15년만에 DNA로 발각



- ▲ 배우 유아인 측 “사실상 공개소환” 반발…경찰 출석 조정 요청
- ▲ 한국노총, 조직혁신위 구성…“신뢰 없는 투쟁 어려워” /사진 뉴스시